**2. 분재의 국제화**

분재는 일본을 세계에 알리는 몇 안 되는 전통예술 중 하나입니다. 분재가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200년 이상의 쇄국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19세기 말 문호를 개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이 문화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자국의 성과를 선보이는 만국박람회에서 일본도 자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873년 빈 만국박람회에 참가하여 극찬받았고, 5년 후인 제3회 파리 박람회(1878년)에서 일본 정원의 일부로 분재가 전시되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적 있는 사람을 포함해 그때까지 분재를 본 적 있는 유럽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4회 파리 박람회(1889년)에서 분재는 세련된 파리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유수의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빌려온 분재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침 프랑스에서 ‘자포니즘(Japonisme)’ 열풍이 불었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프랑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 일본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분재의 국제화 속도는 기세가 꺾였지만, 전후 부흥부터 1950년대에 걸쳐 오미야 분재 마을의 분재 장인들이 기세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연합군 점령 장교들의 눈에 띄었고, 일본 국내외의 정치인과 고위 관리들이 오미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15일간의 대회 개최 기간에 맞춰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분재 전시를 열어 분재라는 예술형식을 많은 외국인 방문객에게 소개했습니다. 분재는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더욱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년에 걸쳐 개최된 오사카 만국박람회 기간 중에는 일본 전국에서 모은 약 2,000점의 분재가 전시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bonsai(분재의 일본어 발음)’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롭게 등재되며, 이 예술형식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분재의 국제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9년 오미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분재대회’는 4년마다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의 분재 팬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국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분재를 모티브로 한 패션과 헤어스타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